

□ 대학회관 건립 추진계획
대교협은 대학과 전문대학 등 약 310개 고등교육기관의 협력과 자율적 상호통제(임시, 평가, 연구 및 국제교류)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여 대학간 협력 센터로서의 '대학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분산 임차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연구소, 한국고등교육연수원 등 대교협 관련 3개 기관이 대학회관에 입주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대교협 대학회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위치한 외무부의 국제연구교류 단지내 입주를 목표로 하여 현재 외무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가능한 방안을 협의·모색중에 있다.

□ 1996년도 대학관련 주요 정부예산 확보 현황
대교협은 대학재정 확보를 최 우선과제로 삼아 정부, 정당, 각종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목표 수준에는 미달하지만 1996년도 대학관련 주요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 63%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확보된 예산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지원 : 1,050억원('95년 대비 350 억원 증가) △ 국립대학 교원연 구비 보조 : 586억원(129억원 증가) △ 공과대학 국책지원 : 400억원 △ 국·사립대학 자구

노력 지원 : 1,000억원(500억원 증가) △ 대학원 국책 지원 : 200억원 △ 국립교육기관 설습 기자재 확충 : 800억원(350억원 증가) △ 학술연구조성사업 : 900억원(300억원 증가) △ 이 공계대 연구기자재 첨단화 지원 : 150억원(신설) △ 포스트 닥 지원 : 80억원(신설) △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지원 : 200억원(신설) △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지원 : 25억원(신설)

□ 연구보고서 및 자료 발간

◎ 대학 행정조직의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5-5-112)

현대 전자공업의 발달은 교통 및 통신의 혁명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21세기의 사회변화상은 지식·정보 산업사회, 지구촌의 세계화, 사회의 다양화 및 민주화, 조국의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상은 우리의 대학 환경에도 몇 가지 변화를 초래하는데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 교육시장 개방,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증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학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대학은 새로운 학생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 조직의 개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성격이 변화하고 시대적·역사적 요청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대학 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고, 대학의 목적과 사명

을 충실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조직의 자율성이 필요한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대학 행정조직의 구성 원리와 운영 원리), 둘째로 외국 대학의 행정조직과 시사점, 셋째로 대학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규모별, 특성화대학별).

△ 연구자 : 신재철(전남대), 정영수(충북대), 김영식(교육부), 이현청, 강경석, 백정하, 조석훈(이상 대교협).

◎ 고등교육부문의 대외 개방 정책에 관한 세미나
(자료 95-6-52)

이 자료는 대교협이 지난 1995년 12월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부문의 대외 개방정책에 관한 세미나'의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 내용이다.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 I : 고등교육부문의 대외 개방정책 방향 : 이현청(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 주제 II : 고등교육부문의 대외 개방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 지정토론 1 : 안경환(서울대 기획실장) △ 지정토론 2 : 권중달(중앙대 기획실장) △ 지정토론 3 : 조강환(동아일보 기획 위원) △ 지정토론 4 : 구성희(서울보건전문대학 교수)